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요즘은 매일 거짓과 사실, 가면과 진짜가 벌이는 희한한 무도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이 모든 상황이 참담하도록 답답하기만 하다. 왜 우리는 거짓에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는가. 거짓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성공하는 과정과 구조를 들여다 보면 매우 당혹스럽다. 거짓은 단순히 반복되고 증식되는 것이 아니다. 거짓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며, 진실을 위조하고 권력이 된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거짓말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와 맞물려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 또는 사실 전체가 아니고, 진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진실을 요구하는 자세 자체가 거짓이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선택적 진실만을 요구하며, 조각난 진실의 일부를 전부로 확대한다. 진실을 원하는 자세의 온전한 의미는 개인, 공적 소속 영역, 조직 관계 등에 상관없이 진실이 어떤 모습 이든 진실의 총체를 요구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불리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진실 또한 은폐하지 않는 것

거짓들 너머로 사실들이 되돌아올 때

이다. 거짓이 제대로 작동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자신이 조작한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과 자기기만에서 시작된다. 이런 자기기만의 성공이 가져다주는 치명적 달콤함에서 멈출 수 없는 중독성이 나온다. 그래서 거짓은 반복되고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짓이 '진실'이 되려면 또 다른 한 축이 있어야 한다. '거짓의 진실성'을 보충하며 거들어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거짓으로 얻는 대가와 결과가 클수록, 거드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거짓은 죄의식 없는 진실의 가면을 쓰고 진실 놀이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거짓 또한 대화적인 특징이 있다. 거짓은 상대방의 다양한 이득과 심리적 상태와 연결되는 부분이 클수록 잘 작동된다. 다시 말하면 거짓은 단순히 강요되거나 속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권력이 된다. 결국 거짓은 진실이 무엇 인지를 결정하는 힘이 법으로 군림한다. 법이 된 거짓은 진실과 거짓을 결정하고, 개인은 이익을 위한 어떤 거짓도 위조도 마다하지 않는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지속적인 거짓'에 의해서 '진실과 거짓의 차이는 부식된다'고 말한다. 거짓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진실을 대체한다. 거짓과 가짜가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 내는 능력으로 자리를 잡는다. 가짜가 사실과 진실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거짓을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진실들'을

조절하고 조작하기 하기 때문이다. 사실에 충실한 진실은 때대로 불편함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일으키지만 거짓은 자극적인 입맛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이런 거짓들은 지지하는 여론을 만들고 합법적인 '진실'이 된다. 이 거짓의 작동 구조를 잘 이용한 사람들은 남보다 조금 더 '돋보이고 싶어서' 행한 거짓이 왜 문제고 죄냐고 항변한다. 아렌트는 거짓과 가짜의 세계를 넘기 위해서는 진실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진실은 전체적 맥락을 통해서 나타나며, 거짓은 이 맥락을 끊어 내거나 위조하면서 세력을 키운다. 이런 의미에서 거짓과 가짜는 맥락과 상황을 엿보거나 이용하면서 으르렁거 튀어나온다. 그러나 이 맥락은 견고하기 때문에 거짓이 한순간 왜곡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완전하게 파괴할 수는 없다. 진실은 결코 파괴되지 않으며, 결국 복원된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알리는 '사실들이 되돌아왔을 때' 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다. 진실에 대한 실망으로 다시 가짜와 거짓의 이미지 세계로 도피하는 것은 어리석고도 어리석다. 도피 대신에 뭇했던 '사실들의 귀환'에 감사하고 환영하며 그 소리에 귀를 여는 것이다. 거짓은 세상에는 믿을 것도, 귀한 것도 없다고 소곤댄다. 이런 거짓보다 더 끔찍하고 냉소적인 거짓은 없다. 다행히 우리에게도 아렌트가 말하는 것처럼 거짓의 권력을 무력화하는 하는 능력이 여전히 있다. 함께하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 더 나은 현실의 변화를 위해 분투하는 것이다.

社說

대선 D-80일 호남의 고민은 계속된다

D-80일. 어제(19일)부로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차기 대선이 딱 80일을 남겼다. 하지만 여전히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지난 주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까지 가족 관련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야 간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을 80일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후보의 가족 문제가 대선 정국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학력 위조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다. 김 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의 경력이 허위 사실이라는 보도가 그것이다. 윤 후보는 결국 사흘 만에 사과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도 암초를 만났다. 장남 이 모(29) 씨가 불법도박을 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이어진 아들

의 성매매 의혹이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이 후보의 아들은 포커 사이트에 유사성 행위 업소로 추정되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후기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후보는 "확인"을 해 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처럼 거대 양당 후보들이 가족과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연일 고개를 숙였다. 문제는 이러한 가족 리스크가 과연 지지율에 어느 정도 변수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직까지 이 후보의 아들 의혹은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호남 유권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콩가루 대선'이란 말에 공감하고 '사과 대선'에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선택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호남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듯하다.

여수산단 작업허가서 허위 작성 여부 밝혀야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산단 폭발 사고와 관련된 작업 허가서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광주일보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을 통해 입수한 이일산업의 사고 당일 '안전 작업 허가서'에는 작업장 주위 20m 이내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들의 제거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경찰 등의 현장조사 결과 폭발 사고가 난 저장 탱크에는 화학물질이 30% 가량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작업 허가서를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탱크 내에 화학물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산소 농도 측정이 불가능한데도 작업 허가서에는 무려 세 곳에 '산소 농도 20.9%'라고 기록돼 있다. 노동계는 산소 농도 측정은 원칙적으로 탱크를 비우고 하단부의 맨홀을 통해 측정해야 하는데 탱크에 연료가 남아 있었다면 측정

자체가 허위이거나 탱크 상부에서 측정했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안전 작업 허가서는 원청업체의 안전 감독관이 현장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작업을 허가하는 문서다. 작업시간·내용·조건·요구사항 등을 표시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하청업체에 전달하며 현장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이처럼 안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작업 허가서 형식적 또는 허위로 작성했다면 안전 불감증은 물론 사고를 방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수산단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한 공장에서 에틸렌 분말을 빼내는 작업을 소홀히 함으로써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직후 작업 허가서를 급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과 노동청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작업 허가서의 진위를 신속히 규명해 엄한 책임을 묻고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기고

코로나 위기, 식탁 문화 바뀌어야 한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

간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뿐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과 원인에 의해 감염이 발생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비말 감염을 방지하는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코로나 감염에 가장 취약한 순간이 된다. 그러나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지 않을 수 없다. 마스크를 벗는 이 순간에 비말이나 타액이 전파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타액 공유 위험성이 큰 우리의 식탁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 방법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개인 식기와 구별되는 공용 식기를 종사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거나, 개인용 숟가락과 젓가락 외에 음식을 더는 개인용 집게를 추가 제공하는 방법, 개인에게 식용 젓가락과 음식을 더는 젓가락을 두 개씩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국물과 장류는 반드시 개인별로 그릇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식탁 문화 수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집게 등 추가적인 식기 구입에 비용이 든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타액이 섞이지 않도록 개인 식기와 더는 식기를 구분하는 기본 원칙에만 충실하다면 테이블에 음식을 덜어 옮길 수 있는 공용 젓가락 한 짝을 추가로 두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실천 가능하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습관을 바꾸려는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오래 전부터 타액의 공유 가능성이 큰 한국의 식탁

문화에 대해 비위생적이라는 국내외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제대로 논의되고 합리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선진국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비위생적인 식탁 문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면서 코로나 방역에도 큰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에 위험천만한 식탁 문화를 개선하지 않는 채 추진하는 비말 감염병 대응책은 구멍이 송송 뚫린 방탄조끼를 입은 것과 같다. 이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중앙 방역 당국에서 사업주가 적은 부담과 비용으로 실천 가능한 합리적인 식탁 문화 개선 지침을 제정하여 권고하거나 필요 시 행정 명령을 부과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야 사업주나 고객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면 해결될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코로나 전부를 지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방역에 취약한 우리의 식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감염에 안전한 식탁 문화 지침을 제정하여 범국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사업주와 국민이 따르게 될 것이고, 국력에 맞는 보다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식탁 문화가 점차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한 위생 관념과 사업주의 실천 의지 부족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행동 수칙을 만들어 국민이 실천하게 유도해서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행정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기고

광주 향토 역사 왜곡하는 4·19기념탑



이병열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명문이 없어 기념탑으로 인지되지 않았다. 탑을 처음 보는 사람은 주위 환경으로 미루어 아마도 기념탑이라기보다 추모탑으로 인식할 것이다. 추모와 기념은 그 가치가 다르다. 추모 행사는 수시 또는 정례적으로 하고, 기념 행사는 매년 3·1절이나 4·19와 같이 해당 기념일에 한 차례 한다. 또한 4·19 기념탑 본체 뒷면에는 당시 데모에 참가했던 17개 학교가 새겨져 있다. 한데 그 가운데 두 개 학교는 1960년 4월 19일 이후에 개교한 학교로 데모 참가하지 않은 학교다. 광주시는 이처럼 4·19기념탑에서 향토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광주 4·19 영웅들의 자존심과 나라 사랑 정신을 훼손했다. 광주 4·19 영웅들은 1960년 부정부패한 자유당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피와 눈물, 헌신을 다해 중심에 섰다. 그럼에도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학교들이 새겨진 기념탑을 보고 학생들은 4·19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4·19공로자회 호서지부와 4·19기념사업회, 4·19혁명동지회 등은 기념탑 설치 장소가 눈에 잘 띄지 않고, 탑 뒷면 4·19 데모 참가 고등학교 기록 오류로 향토 역사가 왜곡될 수 있음을 광주시에 누차 지적했지만 공

사는 그대로 추진되었다. 4·19 단체 회원들은 설치 장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장소 자문위원들을 찾아 면담한 결과 일부 위원은 그 부당함을 인정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또한 지난 6월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4·19 기념탑 설치 장소 이전과 역사 왜곡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데 이어 8월 4일에는 시장을 접견하고 추모와 기념은 그 가치가 분명 다르며 기념탑 설치 장소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그대로 4·19기념탑 준공식을 열었고 행사 당일 우리 회원들은 "광주 망신 4·19기념탑 다시 세워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야 했다. 광주 4·19 영웅들은 숭고한 4·19 정신의 증표인 4·19민주혁명기념탑을 공원 내 다른 장소에 옮겨 향토의 역사를 바로 세워줄 것을 바라고 있다. 광주는 불의에 항거한 3대 민중항쟁의 역사가 있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1960년 4·19민주혁명,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이 그것이다. 이처럼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는 자랑스러운 향토 역사 문화 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민주 성지 광주와 정제성과 광주 정신을 울리게 이어가기를 광주시에 제안한다.

無等鼓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가 언어다. 언어에는 민족 고유의 지문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글에는 한민족 고유의 정신과 문화가 투영돼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문화' 이면에는 한글을 토대로 한 콘텐츠가 적지 않다. 그만큼 한글은 세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성과 역사성을 지녔다. 얼마 전 광주 광산구에 자리한 '월곡 고려인문화관'에 들렀다. 그곳에서는 옛 소련 고려인 집성촌에 세운 광주한글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전(내년 4월까지)이 열리고 있었다. 광주한글학교는 1991년 광

창·김병학 교사 등이 현지에 떠났다. 대학을 졸업한 푸른 청년들은 그렇게 고려인들과 조상의 언어로 소통을 나눴다. 옛 소련에서의 한글 교육은 오늘의 월곡 고려인마을 태동의 계기로 이어졌다. 전시장에는 한글학교 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비치돼 있다. 사진과 신문을 비롯해 학교 회계장부와 교재 등은 30년 역사를 오롯이 증언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판 재외국민용 한국어'와 '재미있다 한국어' 등 초기 교재에서는 머나먼 타국에서 모국어를 그리워했을 고려인들의 마음이 읽혀진다. 한글학자허웅(1918~2004) 선생은 "한 나라의 말은 그 나라의 정신이며, 그 겨레의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다"라고 설파하신 바 있다. 현상이나 물질과 달리 언어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영국인들의 호언이 언어가 곧 국력이자 문화자산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고려인문화관에서 한글의 소중함과 우수성, 동포들의 아픈 역사를 잠시 생각해 본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고려인 한글학교

<b>光州日報</b>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회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항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